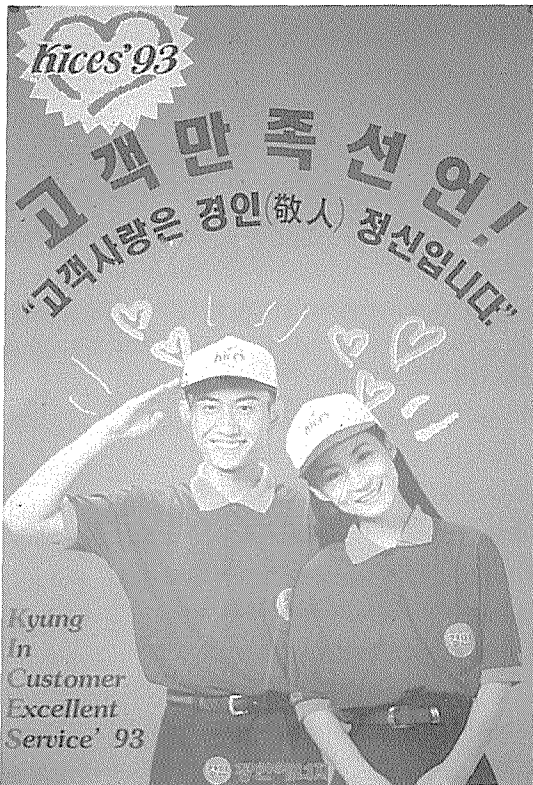


경인에너지

원유처리 . 석유판매에서
대폭적 성장을 이루고



'93년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분야에서 거대한 지각변동이 잇달았던 한 해였다.

신정부에 의해 추진된 신경제 100일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 금융실명제 등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경제개혁정책과 정부조직의 축소 개편, 사회전반에 불어닥친 사정과 개혁의 회오리바람은 국내외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줌과 동시에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석유업계의 주변에서도 에너지자원정책을 관장하던 동력자원부가 '93년 3월 상공부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고, 경우는 다르지만 극동정유의 바톤을 이어 '93년 6월 현대정유의 출범이 있었다.

또한, 석유산업을 둘러싼 경영여건의 변화도 있었다.

첫째, 석유수입 유전스의 단축

둘째, 국내 사용 연료류에 대한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지속

세째, '80년대 중반이후 급증하여 오던 석유수요의 양적인 안정화 추세와 저유황 경정유에 대한 석유수요의 급증

네째, 저수준의 유통마진과 상표 표시제를 둘러싼 정유업체와 유통업체간의 갈등 심화

다섯째, '91년의 3·14 조정명령 해제에 이어,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6대도시의 주유소허가 거리기준 철폐로 주유소확보를 위한 과당경쟁현상 등은 가뜩이나 저수익성에 시달리고 있는 정유업체에 많은 문제와 함께 경영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환경속에서 경인에너지가 지난 한 해 펼쳐왔던 여러가지 사업들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국내 정유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몇마디 첨가하고자 한다.

경인에너지는 제2정유공장이 '92년 3월 준공됨에 따라 제2의 창업을 선언한 이후 올해에는 안전가동의 확고한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

원유처리량 및 석유판매량면에서 지난 '90년에 대비하여 3배 수준의 대폭적인 신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외적 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하는 외부의 경영여건 즉, 정부의 점진적인 환경규제 강화정책, 석유수요의 질적인 변화, 과열되고 있

는 시장경쟁 등에 부응하여 내실있는 중장기대책을 강구, 2000년대 초일류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다.

'93년도의 그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증질유 분해/탈황사업 추진

당초 증질유분해시설 30MB/D, 증질유탈황시설 30MB/D를 상공자원부로부터 허가받았으나,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구조변화와 수요급증으로 인하여 '93년 2월 분해시설 40MB/D, 탈황시설 70MB/D로 규모를 확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 현재 기술도입선을 선정하고 곧이어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에 착수하여 분해시설은 '96년말까지 탈황시설은 '97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다.

또한 등·경유 수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등 사업과는 별도로 '96년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여 40MB/D 규모의 등·경유 탈황시설 증설계획을 확정하고 이 역시 추진중에 있다.

□ 원유중간기지 건설 추진

제2정유공장의 증설로 원유정제처리능력이 275천B/D로 증가되었으나 인천항만의 사정을 감안시 현 부두시설로는 물동량처리에 한계가 있어 정유공장 처리원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VLCC선 사용으로 인한 원유수송비

절감을 목적으로 VLCC 접안이 가능한 아산만 인근에 원유저장기지건설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9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유전개발사업 추진

6개국 7개 광구에서 탐사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알제리 이사완광구 등 3개 광구에서는 6공의 시추를 실시하여 알제리 이사완광구에서 상당량의 원유발견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향후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망지역의 신규사업물색과 생산유전매입사업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

□ PRO-2000운동 추진

- 고객만족경영 추진 (KICES '93)
- 「경인에너지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실천하자」라는 구호 아래
- 으뜸 주유소 선발대회 실시
- 경인의 전 임직원에게 영업현장을 중시하는 CS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고객을 중시하는 경인의 기업정신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고객사랑의 날 행사(일일 주유원 제도) 실시
- 고객 서비스팀 운영(D. W. S)
- 고객 사은행사 실시(4회)
- 고객이 바라는 사항, 우수 주유소 소개 등으로 서비스 혁신 동기유발을 촉진시키는 CS-NEWS지 발간 등을 추진하여 경인의 전 주유소를 「다시 찾고 싶은 주유소」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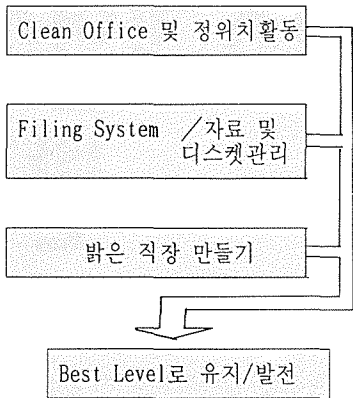
● 조직 개편 추진
급변하는 외부의 경영환경에 대응

	'90	'91	'92	'93(추정)
○ 원유처리량 (MB/D)	67	71	162	195
- 전년 대비증가율 (%)	0.7	5.7	129.2	20.4
○ 석유판매량 (MB/D)	83	95	180	215
- 전년 대비증가율 (%)	10.4	14.4	89.7	19.2

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부·과제도를 전면 팀제로 전환하였다.

• Best-Level 도전제도 실시

'92년부터 실시한 사무관습개혁 프로그램의 유지관리를 생활화하고 관리수준을 level-up하기 위해 3단계의 도전제도를 실시하였다.



• 사무간소화

- 업무절차의 표준화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
- 문서작성의 간소화(SLIM), 보고절차의 단순화(SIMPLE), 신속한 의사결정(SPEEDY)을 위한 품의 보고의 효율화 추진

□ ECO-2000운동 추진

- 환경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업장 환경관리 정기점검제 실시
- 경인 발전소 종합폐수 처리시설 완공, 가동개시
- 폐기물 처리개선을 위하여 폐알칼리 조각로의 설치 및 폐기물 감축, 분리수거 재활용 추진운동의 적극적인 실시
- 이외에도 보다 체계적인 환경관리

를 위해 중장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이상에서 변화는 경영여건에 대응한 경인에너지의 '93년도 주요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막대한 시설투자비 부담의 가중, 시장경쟁의 과열, 만성적인 정유산업의 저수익성 등으로 외부의 경영여건변화에 대응한 정유업계 어느 한 기업만의 대책 마련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내 정유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근원적인 국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3주체 모두의 슬기로운 대처와 이해,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고도화 설비의 막대한 투자비 부담을 업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를 덜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 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정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산업정책방안은 가능한 한 일관성이 있고 누가 나가 다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코스트의 낭비를 막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의 고급화에 따른 추가적인 COST 부담에 대한 이해와 수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 및 업계의 적극적인 대 국민 설득과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끝으로 정유업계 또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체질강화를 위해 이익율 증대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물론 물가관리에 연계한 현재의 유가관리정책하에서는 그 운신의 폭은 좁지만, 석유산업 자체적인 비용절감과 경영합리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석유정제산업 이의 분야에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고도화시설의 건설을 적기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의 세제지원 이외에 유황함량에 따른 유가차이 확대 및 막대한 투자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셋째, 물류시설의 정비와 유통구조의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석유유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계의 서비스개선 경쟁효과를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해 기존부터 추진하여오고 있는 상류부문의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내 도입원유중 자주개발원유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석유시장에서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제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상·하류부문의 수직적 계열화, 선물거래의 활성화, 해외지사망을 활용한 Oil Trade 기능의 강화, 해외정유공장 투자 등을 통한 세계적 네트워크 구성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